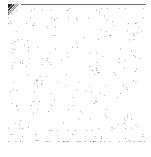


서울 주보

제2595호
2026년 1월 11일(가해)

주님 세례 축일



임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등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

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3,13-17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 | 상계동성당 부주임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紅顛)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백발(白髮)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아름다울 때, 즐거울 때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겠지요.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서로를 아껴주고 좋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당에 잘 나올 때, 봉사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냉담하고 방황하며 죄를 지을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처럼 이마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요르단 강물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진흙으로 가득한 흙탕물이었으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성화가 그리듯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라기보다, 조금은 헝클어지고 지저분한 모습이었

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에서 방금 나와 머리가 엉망이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실 때도 하느님께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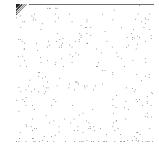
그리고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자녀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서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걸음을 바루어 주십니다. 탕자의 돌아옴을 반기시며, 회개하는 죄인 한 명에 기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때나 비루할 때나, 홍안일 때나 백발일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도 하느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성할 때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림 해설

세례의 추억 | 아래가 넓은 호리병도, 위가 넓은 매병도, 긴긴날 당신에게 길들이 같은 문양이 되었습니다. 알고 믿진 못했어도, 믿으며 알아간 순수함을 돌아보며… 사람을 사랑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놓았던 세례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었으며, 새로운 꿈도 꾸었음을 기억해 냅니다. 이 따뜻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조배합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강애경 율리안나 | 청소년 지도사



기쁨과 축복의 성탄을 지내며, 하느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낳고 일생을 희생으로 살아가신 성모님을 떠올리며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저희 어머니는 올해 88세이십니다. 별명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일 만큼 아프지 않은 곳이 없으시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 김장 김치를 담아 보내주십니다. 자식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불효녀였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기다리시느라 골목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엄마’라는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드린 적도 많지 않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비로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회복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신 뒤, 저희 자매들과 딸아이가 함께 엄마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꽤나 만족스런 여행을 하였고 저도 모처럼 효녀 노릇을 한 듯해 딸아이에게 여행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할머니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충격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건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할머니의 속도를 배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속도에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 자매가 가장 많이 한 말은 “힘드니까 여기 계세요.”, “좀 빨리 걸어보세요, 참아보세요.”였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난 팬찮다.”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위한 여행이었지만, 할머니를 뺀 여행이 되고 말았다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제가 나이가 들어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아이의 거울이 되고,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아이가 나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의 거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인자한 미소가 닮은 엄마를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될 때도, 실수를 할 때도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따뜻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신 어머니. 수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현신적인 삶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 알려주신 어머니… 성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미소를 지닌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컷 무상

*서경 구절은 고도버역에서 박췌

허욱 토마스 모어 | 작가



인터뷰 | WYD(World Youth Day,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주교님, 신부님을 비롯하여 봉사자, 참가자, 주제가 작곡가, 훔스테이 신청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WYD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WYD가 내년 여름이니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WYD를 왜 개최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 스포츠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대형 경기장에 관중을 채워 넣고 경기 한 번 치르는 화려한 모습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프로 스포츠는 존재 그 자체로 관련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유소년 양성 프로그램이 갖춰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종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WYD를 개최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국제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꾸리고자 하는 인프라, 우리가 꿈꾸는 생태계란 어떤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청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경험. 이런 무형의 자산이 WYD를 개최하는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화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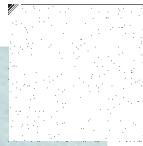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많이 반영되고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주인공다운 인식과 경험을 심어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사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 청년들에게 메인 무대를 내어 줘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이 내어놓는 결과물이 기존 기성세대 일꾼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 비효율과 무의미함으로 비치는 결과물을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함을 갖춰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호소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청소년, 청년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주인공 자리를 내어줄 만큼, 관대하게 열려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호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청년 숫자가 늘어나고 청년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WYD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성을 늘리는 문제는 단지 교회 안에 활동하는 청년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WYD는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으면서, 비종교인 비율도 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적 구도 속에서, 외부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회 과정에서 수많은 인파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게 될 텐데, 시민들의 동의와 인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기준 개최국과 우리는 분명히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노드의 정신은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에게 경청하며 동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교조차 다른 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WYD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종 영애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초기 교회사 관련 기록에서 지워져 희미해진 이름들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학징의』에 보이는 정약종의 여종 영애(永愛)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라도 정읍에서 고아로 상경한 아이였습니다. 1787년에 도저동 오대진(吳大晉)의 집에 종으로 자매(自賣)하였고, 얼마 뒤 선혜청 서리 조신행(趙慎行)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1795년 그녀의 주인은 정약종으로 다시 바뀝니다. 고작 8년 사이에 주인이 세 번 바뀐 셈입니다.

오대진과 조신행은 모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나, 이처럼 천주교 신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전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눈길을 끕니다. 정약종은 조신행에게 10냥을 주고 영애를 사들였고, 몇 년 뒤인 1800년 8월에 영애는 7냥을 내고 속량되어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0냥을 주고 산 여종을 7냥에 속량해준다? 정약종은 상당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마저도 실제로는 받지도 않았을겠지요. 왜 이런 수상한 전매가 문서까지 꾸며진 상태로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 반복되었을까요? 무언가 그녀의 신분을 물타기 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애의 자취는 기록에서 사라져버려 뒷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아 출신이었던 어린 그녀는 분명히 천주교 조직 내에서 수행했던 모종의 역할이 있었겠지요. 1800년 당시 정약종은 명도회 회장이었으나, 당시 영애를 양민으로 풀어준 것은 교회 조직에서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밖에다 두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일 겹니다. 아마도 그녀는 교회의 각 구역

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의 역할을 맡았으리란 짐작입니다. 비선 조직의 연결책 같은 역할 말입니다.

그녀 말고도 강완숙의 여종 소명은 충남 보령에서 올라와 한신애의 여종이 되었다가 뒤에 강완숙에게 보내져 대단한 활약을 했지요. 백정이었던 황일광 시몬이 홍주에서 경상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정약종의 이웃에 이사간 뒤 함께 상경해 교회의 각종 심부름과 연결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어 순교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들의 비천한 신분은 그만큼 남의 눈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겁니다.

여종 영애와 소명, 백정 황일광 등은 기댈 데 없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존중을 받아 맡겨진 직분을 다했습니다. 천대 받던 고아와 백정에게 큰 일이 맡겨지고, 천주를 위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명도회의 6회 가운데는 부위과(扶危科)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나 임종을 앞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건넨 도움의 손길이 당시 사회에 교회의 존재를 깊이 각인하는 징표가 되었던 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민초들의 뿔 뿐리 신앙으로 이 땅 위에 뿔리내렸습니다. 지도자급 양반들이 연이어 배교를 선언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신앙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혼들림 없이 교회에 헌신했고 순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K톨릭: 영화 | 서울주보는 2026년을 맞아 K톨릭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문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유하게 빛어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중 K톨릭 영화칼럼은 한국 문화를 잘 담은 우리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며 성찰을 이어가는 코너입니다.

식탁에서 사라진 리추얼, 잊혀가는 서사

– 영화 〈리틀 포레스트〉: 2018, 임순례 감독 –



김용은 제오르지아 수녀 | 살레시오수녀회

“배고파서 내려왔어. 진짜 배고파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친구의 다그침에 혜원이 어색하게 내놓은 대답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도시를 떠나, 그것도 한겨울 시골로 내려온 이유가 ‘배고픔’이라니요. 그러나 혜원이 느낀 허기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삶은 점점 더 깊은 허기를 남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허기를 안고 혜원은 고향 시골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골집은 어머니의 품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이 숨 쉬는 공간입니다. 영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흐르고, 제철 재료로 차려진 밥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머니는 부재하지만, 그 부재 속에서 어머니의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씨앗은 심는다고 곧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계절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 느린 리듬 속에서 혜원의 삶도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배추를 다듬는 손끝과 된장을 푸는 손놀림 하나하나가 기억을 깨웁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과 사랑을 불러옵니다. 요리는 마



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상처 난 혜원의 내면을 조용히 치유해 줍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하나의 리추얼, 곧 정성스럽게 되풀이되는 삶의 의식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지피고, 간을 맞추는 이 반복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함께 차리고 먹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식탁은 너무 빠릅니다. 배달 음식과 즉석 음식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도 이야기도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의식

이 사라질수록, 우리의 서사 또한 점점 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찬은 이해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시간입니다. 빵을 떼는 이 거룩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 성찬의 은총은 우리 영혼이 느끼는 가장 깊은 허기를 채워줍니다. 가정의 식탁도 제대 위의 성찬례처럼, 사랑을 나누고 기억하는 거룩한 서사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묻습니다. 빠른 음식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정성껏 차린 한 끼, 그 평범한 의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느님 말씀이 자라나는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대립되는 것일까



방종우 애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학창 시절, 하느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뒤, 시원찮은 성적표를 받아 들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느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느님이 계시긴 한지 떡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시원찮은 성적은 평소에 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저는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할 뿐 평소에는 조금 게으른, 편한 생활에 안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힘겨운 훈련을 견뎌야 하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도 공들여 연구해야 하며 많은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적당한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사실 그것은 요행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약, 잠이 오지 않는 약,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약을 먹습니다.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

게 됩니다.”(요한 2,3),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요한 2,6)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뜻을 아는데 소홀히 하면서 마치 맡겨놓은 듯 하느님께 기적을 청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맹목적인 믿음만 요구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앙과 이성을 서로 대립하는 두 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신앙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상보적 동반자라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해하기 위해 믿고, 믿기 위해 이해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이성은 자연적 진리를, 신앙은 계시의 신비를 알게 하므로 신앙은 이성을 오히려 억압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 윤리적 논쟁 속에서 신앙은 이성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합니다. 이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둘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인간 정신이 진리를 향해 솟아 오르도록 하는 두 날개와 같다.” 새롭게 맞이한 올해에는 모쪼록 하느님의 뜻을 알기를 청하며 교회는 무엇을 왜 이야기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성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성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오늘(1월 11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 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47년 1월 18일 박원영 프란치스코 신부(38세)
- 1956년 1월 17일 박우철 바오로 신부(72세)
- 1998년 1월 14일 전용선 요한 신부(52세)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교구청 알림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미사: 2월 8일(주일) 오전 10시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 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월 12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5천 원·조기 미감 가능 / 2월 5일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 /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월 8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승차권 예매: 도림동성당 출발(신청: 02-833-9439)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월 17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205-3호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제82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때, 곳: 1월 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78, 2283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전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3월 4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 30분(13주 과정)
곳: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관 6층 경찰사목위원회 선교 · 교육센터 / 접수: 2월 27일(금)까지
문의(신청): 02)742-9471, 3(<http://www.catholicpolice.or.kr>) 경찰사목위원회 선교 · 교육센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행사 안내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행사기간	2025년 12월 20일(토)~2026년 1월 20일(화),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230-2023 / 2027 서울 WYD 조직위
------------------------	---

20단 목주기도와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내용: 성모 신심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2026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0일~17일(평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갤러리1898 전시 및 미술재료학 특강 / 문의: 02)727-2336

1) 갤러리1898 전시 안내

유럽 500년 그림에 담기다(르네상스에서 모던 클래식까지): 전관 전시일정: 1월 9일(금)~18일(주일)

2) 갤러리1898 미술재료학 특강 안내

때, 곳: 2월 7일(토) 오후 2시~5시, 갤러리1898 제3 전시실 / 강사: 양지희 작가(골든 워킹 아티스트)

접수: 20명(선착순 온라인 참가신청) / 무료 특강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회망찾기' 1월 유가족 월례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월 17일 매월 세번째(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회망찾기'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프로그램: 사별대상별 자조모임(부모, 자녀, 형제자매), 청년 모임, 예술테라피, 독서모임 등 / 2월 21일(토)까지 접수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http://www.3079.or.kr>)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전화 접수(02-727-2495)

총진행일정: 3월~11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예정)

2026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 자격증 과정 모집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원서접수: 2026년 1월 5일(월)~23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곳: 최양업홀(전철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개강 일정	2월 28일 개강
교육 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테스,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상 반 기	교육 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 일정	원서접수→면접전형(설기)→합격자발표→등록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황의 생명교실

때: 1월 29일~2월 19일 매주(목)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 문의: 02)727-2351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족화해위원회

1) 2026년 청년평화감수성피정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청년(만 20세~39세)

내용: 평화 감수성 교육, 비폭력 대화 / 회비: 5만원

때, 곳: 1월 24일(토)~25일(주일) 성바오로 피정의 집(시흥)

문의: 02)753-0815, 010-4682-2412(문자신청_폼발송)

2) 1497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월 1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명동대성당 2026년 하반기 혼인예약 추첨

1) 2026년 7월~12월 혼인 예약 추첨

때, 곳: 2026년 1월 16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 배부 / 한 편장을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절발 시 혼인예약 불가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추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

2026년 희망의 순례자(한국교회사 기초부터 완주장까지)

3월 7일	청양다락골(세계)-도양골 성지 첫 편지 쓰신곳-삽티 성지(도보2.5Km)
4월 25일	접포리(녹청자 박물관)-수리산 성지-손골 성지
5월 9일	신지도 체류지(세만금)-오두막교우촌 전북완주-진산성지 진반들교우촌
6월 6일	남방재 성지 불무골 고우촌-신마골 고우촌 작은재(도보 4.7Km)
7월 4일	성거산 성지-베티성지 여덟째 고개 도보순례-봉암성지
8월 1일	103위 시성터 담고개 성지- 124위 시부터 종로성당-명동대성당
9월 12일	황해도 교우촌 김성 교우촌-민산 교우촌-참회와 속죄의 성당(김파 성당)-화천 성당
10월 10일	명에목 성지-진안리 성지-서지 교우촌
11월 14일	1일차 죽림굴(미사) 도보 7km
~15일	숙소:한티성지
2일차	신나무골 피정의 집

회비: 1인 총 77만원(일시불 조건이나, 분할 납입: 1회차 20만원 2-8회차 6만원, 9회차 15만원) / 40명까지 입금순
순례일정 불참시에도 회비납입, 도보순례 가능한 자, 단체 품목과 기초자료부터 제공 / 여행자보험(최고 1억) 가입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인준단체 알림

모임

ICPE-수험생, 20대 청년 피정 / 문의: 010-5646-6594
때, 곳: 2월 7일, ICPE센터 / 주제: 왜, 살아야하는가?

11강 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1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곳: 1월 29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성모신심 피정(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강사: 고봉연 신부(춘천교구)
때, 곳: 1월 19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미사와 강의 /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1월 16일~19일·2월 13일~16일·2월 20일~23일·3월 20일~23일, 4월 17일~20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월 13일 김대영 신부 1월 20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부3일 피정 | 1월 30일~2월 1일, 2월 27일~3월 1일
영신수련 함께하는 기도학교 | 3월 9일 개강(11주간)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순례 모집 / 문의: 010-5735-4578
레늄크리스티 사도직 담당 정시몬 신부
2026년 1월 14박15일,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2026년 7월 9박10일, 캐나다 성모성지
2026년 11월 10박11일, 멕시코 과달루페·칸쿤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텁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2026년 2월 28일~3월 3일	전주 11곳, 광주 4곳	출발:
3월 28일~30일	대구 17곳	가톨릭회관
4월 11일~15일	울릉도, 독도, 왜관수도원	후문(명동)
3월 14일~18일	일본 나가사키 오우라성당 신도발견의 날 기념미사-고또(오도)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2월 6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2월 20일(금)~22일(주일)
사순 피정	3월 10일(화), 3월 17일(화)
치유침묵기도 피정	3월 20일(금)~22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개인 피정 가능

Zoom 청년 성경 통독 모임(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대상: 여성 청년 / 문의: 010-8852-9817
때: 매주(수) 19시30분 / 내용: 구약 통독

5노원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7733-9486

때, 곳: 매월 셋째주(화) 19시~21시30분, 노원성당 대성전 / 미사, 찬양, 강의, 암수
강사: 김경진 신부(강의·암수) / 주제: 연간 특강 '기도의 삶', ① 마르타와 마리아를 통한 기도의 본질

2026년 상해·황주·남경·기흥 평화순례

때, 곳: 4월 23일~26일(3박4일), 상해임정청사·남경대학살기념관·리지상위안소·중산릉 등 / 선착순 20명
순례 안내길잡이: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회)
회비: 145만원(3월 22일 이후 변동될 수 있음)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산티아고 도보순례·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

1) 가톨릭영화인협회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때: 4월 10일(금)~22일(수) / 문의: 02)778-8565
2)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4일~6월 20일 매주(수) 18시30분~21시(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1월 23일~25일·2월 6일~8일·2월 27일~3월 1일·3월 27일~29일, 한라산 눈꽃 영실
산행 1월 15일~18일·1월 30일~2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겨울 한라산눈꽃산행과 자연순례 1월 16일~18일·
1월 22일~24일·1월 26일~28일·2월 2일~4일·2월 7일~9일·2월 20일~22일·2월 26일~28일, 3월 사순시기 성지·자연순례 ① 추자도 포함 3월 1일~4일·3월 12일~14일, ② 차귀도 섬 포함 3월 7일~9일·3월 16일~18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고상·성모상·목주 만들기(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영어 ABC반, 기초영어반 / 문의: 02)727-2471

새천년복음화학교 153기 1단계 개강

때, 곳: 1월 14일(수) 14시, 가톨릭회관 527호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친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2026년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이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접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서울대교구 전례꽃꽃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3월 5일~6월 18일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명동)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24-1108, 010-6237-7642

이콘연구소 제24기 신입생 모집

제작 연구: 3년 과정 / 대상: 65세 미만
개강: 3월 3일 / 실기시험: 2월 21일 또는 23일
곳: 가톨릭출판사(중구 종림로 27) 6층
문의: 02)313-9973(icon-2003@naver.com)

트라우마가족치료전문가 자격 과정

대상: 비전공자 및 종교지도자
때, 곳: 1월 25일부터 매주(주일) 14시~16시, 종로 성모의집(종로2가) 상담실 /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종로성모의집)

예수회 금요기도학교

체계적 기도강의, 기초부터 따라하는 기도실습
정기적 침묵 피정 / 회비: 학기당 15만원
때: 3월~6월 매주(금) 오전 10시~13시(주1회, 학기제)
곳: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2026년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월 27일(금)까지
수강신청: 1월 12일(월)~2월 27일(금)
모집: 경영학,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전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문의: 02)705-8718(<https://scec.sogang.ac.kr>)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계특강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동계특강을 진행합니다
신학대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서 참
가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때, 곳: 1월 26일(월)~2월 5일(목), Zoom(온라인 강의)
회비 없음 / 문의: 02)705-8668, 9(gsoc@sogang.ac.kr)
신청링크: <https://forms.gle/EBM9eSQ7sptNT1E2A>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수) 14시 / 누구나 환영 강수근 신부 직강
반주장구 유료강좌	(목) 13시30분 / 초보자 환영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및 비대면(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구정모 신부
비블리오 드라마	김영근 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서명원 신부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김영근 신부
하늘씨앗 깨어나기 (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예술작품으로 하느님을 만나다

고흐, 렘브란트, 루오, 샤갈 등의 삶과 예술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 강사: 한상봉
때: 2026년 1월 22일~3월 5일 매주(목) 14시~16시(7주간)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광센터(명동)

선교아카데미 제15기 교육생 모집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 회비: 80만원(식대 포함)
때: 3월 5일~9월 3일 매주(목)
곳: 한국외방선교회(주최) 본부(성북동)
문의: 02)3673-2528 선교센터, 010-2730-3673

모집

도미니코 평신도(재속회) 회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문의: 010-7724-4036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성음악아카데미(중림동)
지휘: 성궁용 / 문의: 010-9042-8811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톨릭청년 미술가회' 검색 후 문의(010-3098-2192)

베아뚜스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3709-7956

연습: 매주(목) 18시, 전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2 번 출구(장충동) / 테너·베이스(시니어 환영)

2026년 명동대성당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1월 24일까지 접수 / 대상: 1961년 이후 출생자
활동: (토) 오후 6시 미사 / 장례, 특별미사
문의: 010-3386-6140 (문자)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문의: 010-2633-2025
활동: (주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1월 18일(주일) 17시 / 명동대성당(단체모집란)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시니어합창단 2026년 단원 모집

KBS홀순교자현양음악회, 한반도평화음악제, 성지성음악순례 / 지휘: 이상희
대상: 55세 이상 신자 / 1월 31일까지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주최: 평화를 노래하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미사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1월 19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월 26일(월) 14시 / 접수: 구요비 주교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월 16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때, 곳: 2월 9일(월)~11일(수) 11시, 본원(미아동)
영성강의와 미사 / 문의: 010-8684-1360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 심리 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끼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
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끼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6년 혜화동성당 혼인미사 예약

혼인미사: 매주(토) 12시 / 문의: 02)764-0221

연중 수시 접수 / 성당 홈페이지 참조

우수한 건축양식과 미술품으로 가득찬 혜화동 성당에서 혼인미사 예약을 받습니다 / 혼인미사 전용 신부대기실, 폐백실, 주차장, 피로연장 완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 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심리검사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과정	1월 16일~2월 20일 (금) 10시~15시(6회), 가족상담사 1급 과정 1월 22일~3월 12일 (목) 10시~12시(8회)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학)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요셉의원(서울역 소재) 직원 모집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요셉의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668-8432

분야: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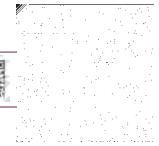
근무형태: 파트타임 가능 / 병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후 지원서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곳: 강동구, 영등포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내규에 따라 자녀학자금, 병원진료비 혜택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각1부 / 이메일 문의 1월 18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종로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5075-3513 권성환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관할리 분원	010-5195-3217 성소부
작은 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전대입구역)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월 17일(토) 14시	수도원(서울 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Zoom)	가톨릭회관 209호,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신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쿠르트 코흐 지음
바오로딸 | 240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위한 길잡이로, 이 시기에 거행되는 주요 전례에 대한 신학적·영성적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각 전례 시기의 주제와 의식을 전례적·성경적·신학적·영성적 바탕에서 꼭넓고 심도 있게 조명한다. 기존의 짧은 묵상서와 달리, 사순과 부활 시기의 의미에 깊이 머물러 묵상하도록 이끈다.



📖 신간

교리 교육 지침

교황청 문헌(새복음화촉진평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384쪽 | 1만5천원
문의: 02)460-7582, 3

이 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리 교육 문헌의 계보를 잇는 공식 문서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아 2020년 반포되었다. 이 지침은 교리 교육의 신학적·사목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교회 각 지역이고 유한 맥락 안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전체는 3부 428항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복음화 사명 안에서 교리 교육의 의미와 실제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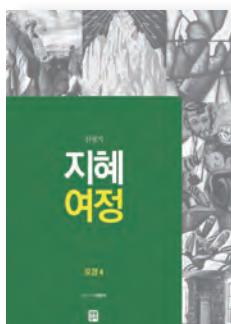


📖 신간

지혜 여정 - 오경1 창세기

김명숙 지음
생활성서사 | 20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창세기를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읽어내는 성경 입문서이다. 신학처럼 느껴지기 쉬운 창세기를 성서학적 깊이와 신앙적 통찰로 풀어내며, 성조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돋는다. '13주간 1주 1과'로 구성된 이 책은 삶과 신앙을 잇는 지혜로운 묵상 여정으로, 성경을 삶의 빛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신간

지혜 여정 - 오경4 신명기

이한석 지음
생활성서사 | 168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딱딱한 율법서'라는 선입견을 깨고,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으로 풀어낸 책이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떠나는 이의 고별사이자, 절망 속 이스라엘 백성이 피워 올린 희망의 신학을 담고 있다. 성서학과 고고학, 인문학을 아우르며 신명기를 오늘날 삶의 주제들과 연결 짓는다. 성경 공부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가장 친절한 영적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터울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보성인들이여,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안젤루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젤루스 주일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 20세~30세 천주교 신자
- 주요활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미사 전 교리 등
- 문의 : mdsd.angelus@gmail.com

◎ 2026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 혼인예약 : 2026년 7월 ~ 12월
- 추첨일시/장소 : 2026/1/16(금) 오후 2시 / 대성당

- 『 낮 12시부터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 『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
- 혼인장소 · 요일별 혼인 가능시간

혼인미사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 필수준비사항 : ① 교직증명서 1부 (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 ·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교구(본당) 행사로 인해 추첨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2026/1/30(금)부터 본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V - 이정우 피아노 리사이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거장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V', 마지막은 신예 피아니스트 이정우의 무대입니다. 이정우는 202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콩쿠르에서 시니어 부문 최연소 1위에 오른 아티스트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가의 열정이 담긴 이번 연주회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 1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 파밀리아 채플
- 예매 : 전석 20,000원 (NOL 인터파크 티켓 판매 중)

『 비지정석, 휴식시간 없이 약 60분 공연 』

·문의 : 주관사 목프로덕션 ☎ 338-3816

※ 프로그램 및 연주자 약력은 예매사이트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성가를 사랑하고 성음악에 관심있는 만 55세 이하 여성 가톨릭 신자

·활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 주일 세례식 성가 봉헌

·오디션 : 2026/1/18(일) 낮 12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문의 : 단장 ☎ 010-2230-0138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2월 8일 ~ 12월 31일 : 3,187,500원)

2025년도 누계 : 1,529,235,150원

기부천사 총 누계 : 7,098,723,463

윤 정 희	1,000,000원	김 선 경	1,000,000원
익 명	700,000원	익 명	93,700원
익 명	243,800원	한 주 완	100,000원
박 연 선	5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 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명동대성당 주일미사독서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로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 주일미사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교우

·서류 : 입단지원서(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와 교직증명서를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 오디션 및 인터뷰 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 』

·마감 : 2026/1/11(일)까지

·문의 : 단장 nataira@naver.com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40대 남녀 천주교 신자

·활동 :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 2026/1/18(일) 오후 5시

※ 지원방법은 본당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www.logoschoir.org) 참조

◎ 명동대성당 '성서백주간' 모집

·요일(시간) : 화요일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수요일 (오후 7시~9시)

목요일 (오전 11시~1시)

금요일 (오후 7시~9시)

토요일 (낮 12시~2시)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신청접수 : (이름, 세례명, 본당, 신청반 요일-시간)

문자 메시지로 ☎ 010-6273-4291

·모집기간 : 2026/2/10(화)까지

·개강미사 : 2026/3/7(토)

◎ 명동대성당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대상 : 남녀 가톨릭 신자 (61년 이후 출생자)

·연습 : 매주 금 오후 7~9시, 토 오후 5~6시

·활동 : 매주 토 오후 6시 주일미사 및 사제 · 교우 장례미사

·접수마감 : 1/27(화)까지 (입단지원서 필히 접수)

·오디션 : 1/31(토) 오후 7시 (지원서 제출자에 한함)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3층 명례방

※ 자유곡 악보 2부, 교직증명서(밀봉 요망) 지참

·접수문의 : 단장 ☎ 010-3386-6140 (※ 문자 요망)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친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교육에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양교육 이승규(토마스브라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주교좌임명기록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	봉헌 : 215, 220, 513	성체 : 506, 180, 174	파견 : 77
-------	--------	--------------------	--------------------	---------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5년 7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분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1/11(일) 오전 11시 소성당

◎ 새 영세자 첫 고해

일시/장소 : 1/13(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초 축복 및 봉헌 》

2월 2일(월)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 1년 동안 사용될 제대초 봉헌접수 : 본당 사무실
- 개인 초 축복 : 당일 오전 7시 미사 전, 제대 앞 초봉헌대에 직접 올려주세요.

◎ 2월 17일(화) 「설」 합동 위령 미사

날짜	시간	미사 예물 접수방법
2/17 (화)	07시, 10시 18시, 19시	•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접수 : 본당 사무실 (2/15 주일까지) • 당일 해당 미사 전, 제대 앞 봉헌함에 직접 봉헌 가능

• 상설고해소 휴무 : 2/16(월)~2/18(수) ※ 19일(목) 11시 재개

《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전보존위원회 》

임. 최용배(사도요한) 위원
황근육(프란치스코) 위원

◎ 2025년도 제 단체 정기 감사

- 감사대상 : 본당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 대상기간 : 2025/1/1~12/31 (1년간)
- 감사일시 : 2026/1/17(토)~18(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사목협의회실
- 구비서류 : 금전출납부, 증빙서류철, 수입자출 현황, 통장 등

◎ 2026년도 하반기(7~12월)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추첨일시/장소 : 2026/1/16(금) 오후 2시 / 대성전
※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미 사 (M as 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코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종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주일미사 (토요일)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